

“교관이문쌍수의 실천덕목 대립구조를 화합으로”

제3회 천태국제학술대회 한·미·일·중 학자들 참석

“경전은 불법을 담고 있는 그릇이지, 그 자체로 진리는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천이다.” 22일 서울 관문사 대웅전에서 열린 제3회 천태국제학술대회에서 데이비드 W. 체플(미·하와이대) 명예교수와 가와가츠 마모루(일·다이쇼대) 교수는 이론과 실천이 일치해야 한다는 <법화경>의 교관이문쌍수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천태사상 중 교관이문쌍수는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니며 우리가 불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두 개의 수레 바퀴를 뜻하는 데 착안한 두 교수는 “교관이문쌍수(敎觀二門雙修)는 종교간의 벽 대신 다리를 놓고, 지구촌 문

명을 분열시키는 대신 하나로 엮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 또한 “오늘날 전쟁·살인·약탈 등의 반문명적 행위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중 교인과 다른 종교인 간의 대립에서 비롯됐다”며 “교관이문쌍수의 실천 덕목은 대립의 구조를 화합으로 돌리는 화삼귀일(三歸一)과 일불승(一佛乘)에 근거한 불국토를 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명이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창안되는 만큼, 문명간의 충돌 역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간의 삶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데,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천태사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천태불교와 지구촌’을 발표한 데이비드 교수는 “경전의 의미는 추상적인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반응하고 경전을 통해 변화하

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된다”며 “경전이 지향하는 궁극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에 따르면 <법화경>은 마하가섭의 광덕(光德), 수보리의 보생(寶生), 목간련의 음악(音樂) 등으로 이미 불국토의 실체와 정신을 기록해 놓았지만, 정작 이 경전을 읽는 후대 사람의 불국토를 향한 실천적 노력이 부족해, 그 세상을 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와가츠 교수 역시 ‘천태사상의 문명론적 신해석·화합의 사상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교관이문쌍수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법화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실단의(四悉檀義)’ ‘사중석(四稱釋)’ ‘사중흥폐(四重興廢)’ 등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단의 등은 천태사상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해 방법·분석 입장 등의 사고 양식을 설명한 것으로, 불교의 이해와 실천 즉 부처가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 혹은 진여나 불성 등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



◇천태종 부설 천태불교문화연구소가 22일 서울 관문사에서 마련한 제3회 천태국제학술대회 모습.

다’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실천으로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와가츠 교수는 “<법화경>에서 보여준 깨달음은, 의미나 내용이 아니라 깨달음의 궁극적인 실체를 이해시키는 데 있다”며 “이것의 초석이 되는 게 <법화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실단의와 사중석 그리고 사중흥폐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회의에는 ‘21세기 문명과 법화사상’(권기중·중국대 교수), ‘문명의 전환과 천태·법화사상’(강건기·전북대 교수), ‘21세기 천태 이론의 신앙’(황사첸·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

‘천태 성구실상 분석’(쇼치·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 ‘울 수밖에 없는 세기를 향하여’(다다요·일본 다이쇼대 교수), ‘미안마의 불법’(우 산 린·종교성 국장) 등이 발표돼, 부처님과 천태 지자 대사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조명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준비한 지천규(천태불교문화연구소) 박사는 “국제학술대회가 천태학 연구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국내 천태학 연구는 대장경에 수록된 천태사상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대학연합회

유럽불교와 교육 자세한 정보

유럽에서 부처님의 수행과 교리를 펴고 있는 단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바로 불교대학연합회(Buddhist University Association)이다.

연합회는 유럽의 모든 불교대학 조직이 망라된 센터로, 불교학의 요람을 보호하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회의 활동과 사업을 살펴보면, 유럽 불교대학의 위상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연합회는 모든 불교종파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사이트에서는 유럽 내 모든 불교대학의 연혁·목표·사업 등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연합회는 1995년에 설립돼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연합회는 매년 유럽의 불교대학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유럽불자대회’를 마련하면서, 유럽 불교인이 서로 협력하고 친분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 왔다. 유럽 불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한 셈이다.

‘사업’ 메뉴에서는 연합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즉 유럽의 불교대학과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유럽 불교대학 목록집’(yellow book)을 만들고, 유럽 불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목록집 발간은 유럽에 있는 각종 불교 대학, 센터, 불교학자 인명 등의 목록을 최신 정보로 정리, 유럽 불교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정보는 2001년부터 인터넷으로도 제공된다.

또 ‘불교와 교육’은 유럽 불자들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교 교리 교재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이렇다할 교재가 없어 시작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불교교육 관련 교재 목록과 불교 교수법 관련 목록집을 준비해 불교 교육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은 불교 종파간 이질적인 교리에 대한 관점을 서로 교환하고 배우며, 다양한 연석회의를 통해 상호협력력을 증진하고 있다. 97년 프랑스에서 열린 연합회의 연석회의에서는 티베트 불교와 인도 불교 등 다양한 종파에서 재가불자에게 권하고 있는 생활선(禪)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연합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타종교 단체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종교간 이해와 조화를 모색하는 모임인 연합회 부설 ‘유럽의회’는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국제 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닐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불교대학연합회의 라마 데니스 톤드르프 공동회장은 “유럽에 있는 불교대학과 기타 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연합회의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http://www.sbg.ac.at/budd/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백운직지심요’로 부르자

김성수 교수 주장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첫 금속활자로 인쇄한 민족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이 경전의 긴 이름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

18일 열린 ‘직지와 불교문화’ 주제 세미나에서 김성수(청주대·사진) 교수는 “이 경전의 약서명(略書名)은 ‘백운직지심요’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김 교수가 발표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약서명에

관한 제언’에 따르면, ‘직지심경’이라는 명칭 가운데 경(經)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용어다. 따라서 ‘경’이라 불렀을 경우 이 경전의 내용을 부처님의 교설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불조직지심체요절’로 지칭할 경우 1351년 중국 선사인 석육정공 스님이 지은 <불조직지심체요

절>과 구별이 불가능해지므로 문제가 있다. 직지·직지심체·직지심체요절·불조직지심체 역시 석육정공 스님 선서의 약서명으로 적당할지 모르나 백운경한 스님이 중보·초록했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다른 스님의 비슷한 이름의 선서와 구별할 수 있고, 또 이 경전을 저술한 백운경한 스님의 본래 취지를 모두 포함하는 ‘백운직지심요’가 가장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직지의 약서명은 지금까지 직지심경·직지심체요절.

직지·직지심체·직지심체요절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는데, 이 때문에 국내·외 학자들은 서로 다른 자료로 오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세미나에서 성기서(서원대) 교수의 ‘불조직지심체요절과 위빠사나 수행법 비교’, 황선주(서원대) 교수가 ‘직지는 금속활자본인가’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직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청주불교교수회가 주관해 마련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삼화사 불교학술 강연

통해 삼화사(주지 원행)는 10월 5일 오전 10시 적광전에서 ‘21세기 인류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국제불교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양중문(중국사회과학원) 교수의 ‘화엄종의 법계원용사상과 21세기 문명’ 등이 발표된다. (033)534-7661

인쇄출판 학술회의

청주시는 28일 오전 10시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금속활자의 발명과 인쇄문화’를 주제로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문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금속활자 인쇄술(천해봉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된다.

조계종 ‘성보’ 2호 발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해자)는 18일 <성보>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조선 초기 다포식 건물이 발견돼 이목을 집중시켰던 ‘상원사 적멸보궁에 대한 조사보고서’(이강근)를 비롯해 ‘개암사 응진전 16나한상’(김정희), ‘오어사의 불교공예품’(최용천) 등의 논문이 실려있다. (02)739-1830

해인사 유물전시관 연말 개관

법보 종찰인 해인사의 유물전시관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경남 함안군과 해인사는 13일 “연말에 가면 친인척 옛 해인초등학교 1만4천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해인사 유물전시관을 완공해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백여 여 원의 예산을 들여 4년만에 완공될 해인사 유물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천6백여㎡의 규모로 현재 85%의 공정이 진척된 상태.

이 전시관에는 불교와 관련된 224점의 유물들이 보존되는데 지하 1층 불화실의 경우 평화를 비롯, 16나한상, 육불좌상, 사자상 등 불상들이 전시되고 지상 1층 역사실에는 불교 서적과 권역(扁額), 족자(簇子), 인장(印章), 청자다기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2층에는 장경판전 모형과 팔만대장경 판각 진경 등이 전시되며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백남준씨의 아트비전이 설치된다.

오종욱 기자

“재가중심 중단개혁 필요”

윤승용 박사 선우도량 세미나서 주장



“불교가 재가불자의 삶 속으로 파고들지 않고서는, 21세기 사회의 주류 문화에서 언젠가는 도태되어 종교로서 생명력을 잃고 말지 모른다” 윤승용(한국종교연구원 연구위원·사진) 박사가 19일 열린 선우도량의 ‘교단정화운동과 조계종 정체성’ 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지적해 주목된다.

논문에서 “21세기에는 종교의 형태뿐 아니라 사회적 위상도 크게 변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 윤 박사는 “재가불자는 이전의 불교와는 다른, 인간의 얼굴을 하고 다가가서는 불교를 찾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불교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고, 그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이를 위해 윤 박사는 ▲ 21세기 시대정신인 작은 신행 공동체 구축과 연대를 기반으로 중단체제를 재구성하고 ▲ 재가불자 중심의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번 세미나에는 월주(조계종 前 총무원장) 스님의 ‘정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포리(美 칼튼대) 교수의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한국불교’, 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박사의 ‘정화의 전개과정과 성격’, 박승길(효성가톨릭대) 교수의 ‘한국현대사와 정화’ 등이 발표됐다.

1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결혼식 주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 설산 스님의 인간적인 따스함



아침모모

설산스님 에세이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스님의 구도 에세이

- 영혼결혼식, 그 깊은 인연의 끈
- 여배우의 젓가슴에 써 내려간 반야심경
- 스님의 약혼식
- 한 영혼과 대면하다
-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 내가 체험한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
- 영혼은 반드시 있다
- 나의 죄는 내가 전생에서 빌어 온 것이다

★ KBS 아침마당 목요초대석 출연

오늘밤 나는 알몸이 되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의 시린 가슴을 받아주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등불이 되고 싶다

*Home Page address: http://www.seolsan.com / *저자 주소: 서울문 서대문구 용운3동 321-3 (Tel:303-0024) ◆무료 영혼결혼식에 관련된 문의를 받습니다.

대표전화 586-0477
팩시밀리 580-9176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1-1
휴일 정어리 씨앗